

# 조선후기 宮家의 미술사·도시인문학적 의미 —彰義宮의 장소성과 서화컬렉션을 중심으로

황정연(黃晶淵)

## I. 머리말

## II. 조선후기 궁가의 도시문화적 면모

1. 궁가의 입지와 상업적 소비처로서 기능
2. 궁가와 18·19세기 서울의 서화유통·수집문화

## III. 창의궁을 통해 본 조선후기 궁가의 서화향유

1. 창의궁과 서촌의 문화지리적 위상
2. 창의궁의 운영과 서화컬렉션

## IV. 맺음말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주요논저:

「石農 金光國(1727~1797)의 생애와 書畫收藏 활동」, 『미술사학연구』 235(2002), 「高宗 年間(1863~1907) 宮中 書畫收藏의 전개와 변모 양상」, 『미술사학연구』 259(2008), 「흙영(欽英)」을 통해 본 유만주(俞晩柱)의 서화 감상과 수집 활동」, 『미술사와 시각문화』 7(2008), 「19세기 조선의 서화수장과 중국서화의 유입」, 『규장각』 38(2011), 『조선시대 서화수장 연구』(신구문화사, 2012) 등.

이 논문은 조선후기 書畫收藏이 활발하게 전개된 배경과 주체를 다각도로 규명하고자 궁중과 私家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던 宮家의 역할을 조명한 것이다. 궁가의 소장품은 오늘날까지 일부 자료가 전해지는 사례도 있지만, 세대가 거듭될수록 양반가 자료 속에서 궁가의 성격이 희석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英祖의 잠저 彰義宮은 궁가 본연의 성격을 알려주는 소장목록이 남아 있고 서화컬렉션의 재구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토대로 조선후기 궁가의 문화향유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다.

창의궁이 있던 서울 西村 지역은 궁가와 유력가문, 왕실재원인 창고가 밀집해 있어 새로운 예술취미, 높은 소비취향을 보인 중심지이자 영조가 잠저시절 머물렀던 약 10년 동안 서울의 사회적·경제적 변화상을 몸소 체험하게 해준 장소였다. 창의궁에 소장되었던 많은 서책과 서화, 여항에서 구득한 민화 등은 왕실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비행위를 펼쳐 시장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궁가의 문화 활동을 보여준다.

도심 속 궁가는 왕실과 종친, 여항의 문화가 혼합되면서 御筆, 왕실족보와 서화류 등 궁중 물품이 자연스럽게 전래되었고 宮屬들의 경제활동과 시전상인들의 왕래를 통해 종로거리에서 판매한 經書類와 民畫풍 그림, 紙塵 소속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도배지 등을 입수하였다. 창의궁의 경우에도 컬렉션의 형성과 운영 주체는 영조였지만 왕실과 민가의 문화가 혼재된 궁가의 성격은 이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살펴본 창의궁, 명안궁, 저동궁, 창성궁, 운현궁의 소장품을 통해 궁가를 매개로 왕실문화가 여항으로, 반대로 여항의 문화가 궁가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궁가는 조선후기 변화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서화유통과 감상, 收藏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까지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그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다. 미술사 분야에서도 궁가 연구는 아직 시론에 불과하다. 향후 정밀한 성과가 축적되어 조선시대 미술문화를 이끈 다양한 주체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도시인문학, 조선후기, 서울, 상업의 발달, 궁가, 영조, 창의궁, 日閑齋, 민화, 서화수장

# 조선후기 宮家의 미술사·도시인문학적 의미\*

## —彰義宮의 장소성과 서화컬렉션을 중심으로

황정연(黃晶淵)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 I. 머리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겪은 조선은 17세기부터 수도방어체계를 재구축하고 피폐된 경제와 사회를 복구하고자 여러 제도적 보완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인구의 이동, 신분제의 동요, 지역구조의 변동 등이 주된 현상으로 두드러졌고 이러한 변화의 가장 최전선에 있던 곳이 바로 서울(한양)이었다.<sup>1</sup>

조선전기 정치와 행정의 계획도시로 출발한 서울은 후기로 갈수록 도성인구의 대부분이 '전적으로 시장(市肆)을 열고 물건을 교환'하며 생계를 유지한 상업도시로 변모하였다.<sup>2</sup> 통치를 위한 공간으로 경복궁을 기준으로 동·서·남·북부로 구획되었고 도성 내부의 중앙을 중심으로 흐르는 청계천을 기준으로 각종 관청과 시장, 왕족·사대부들의 私邸, 중인 이하 하급계층의 거주지 등이 밀집하면서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 일찍이 朴齊家(1750~1805)가 조선후기 서울의 변화한

---

\* 이 논문은 국립중앙박물관 주최 《도시 속 미술, 미술 속 도시》특별전 연계심포지엄(2016.10.20.)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시 토론자로서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한국예술종합학교 조인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1 漢陽은 北漢山 이남, 漢江 이북 지역을 가리키는 서울 지역의 옛 지명으로, 조선시대 공식 명칭은 漢城府이다. 조선시대에는 한성부·한양·漢京·京都·京兆·京城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이 글에서는 통일성을 위해 오늘날 보편화된 용어인 '서울'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2 『英祖實錄』 권126, 英祖 51년 12월 壬申(국편영인본 44책 p. 521). 조선시대 도시와 상업의 발달에 대해서는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 상업발달사 연구』(서울: 지식산업사, 1998); 同著, 『조선시대 서울도시사』(서울: 태학사, 2007); 손정목, 『조선시대 도시사회 연구』(서울: 일지사, 1977); 이태진 외, 『서울상업사연구』(서울: 서울학연구소, 1998); 이태진 외, 『서울상업사』(서울: 태학사, 2000) 등 참조.

모습을 두고 “우리나라는 도성에서 몇 리만 벗어나도 풍속이 시골티가 난다.”라고 한 것은 이 곳만이 지닌 경제적·문화적 특수성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sup>3</sup>

조선후기 현물거래에 기초한 상업화와 여기서 파생된 서울의 도시화는 거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미세한 부분까지 변화시켰다. 특히 인적관계망을 기반으로 형성된 ‘서화교류’와 ‘鑑賞’, ‘收藏’이라는 분야는 이러한 상업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많았다고 할 수 있으며, 유통되는 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諸子百家書 등 각종 출판물과 명현들의 글씨, 금석첩, 도화서 화원과 직업화가들의 그림, 문방구류 등 공개적인 구매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골동서화에 대한 접근도 한층 자유롭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전까지 ‘末藝’ 또는 ‘玩物喪志’로 치부했던 서화감상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玩物을 일상화한 애호가들의 충위를 두텁게 하며 20세기 초 근대기까지 그 전통이 이어졌다.<sup>4</sup>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에 들어와 비약적으로 나타난 예술향유층의 증대와 서화교류 양상, 그리고 조선후기 다양한 계층이 만들어낸 지리적·문화적 공간에 대한 탐구라는 관점에서 ‘宮家’를 주목하고자 한다. 철저한 중앙집권국가였던 조선에 있어 여러 사회현상의 이면에 왕실(중앙)이 중요한 원동력이었음을 간과할 수 없고, 官府와 왕실기구의 증대가 조선후기 상업화·도시화를 촉진시켰다는 점에서<sup>5</sup> 궁가의 증설 또한 사회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에 있어서도 고려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로 궁가는 ‘궁집’, ‘宮房’이라고도 하며 대군, 군, 공주, 옹주, 부마들, 혹은 후궁의 살림집을 의미한다.<sup>6</sup> 임금의 아들과 딸, 즉 정비의 몸에서 태어난 대군과 공주, 후궁에게서 태어난 군과 옹주들은 일단 혼례를 치르면 모두 궐에서 나와 생활했는데, 이때 이들의 살림집이 모두 궁가에 해당된다.

조선전기까지 궁가는 입궐하지 않은 왕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한 공간으로서 성격이 컸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면 거주 공간 외에 왕실의 재정은 물론 제사를 담당하거나 龍興宮처럼 왕실의 別宮 기능도 겸비한 복합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후기 궁가는 전기에 비해 면적도 커지고

3 朴齊家, 『進疎北學議』, 『貞蕤閣全集』下(서울: 여강출판사 영인본, 1986, p. 497). “我國都城數里之外, 風俗已有村義.”

4 17세기 이후 골동서화 감상과 수집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해서는 장진성, 「조선후기 古董書畫 수집열기의 성격: 김홍도의 〈포의풍류도〉와 〈사인초상〉에 대한 검토」, 『미술사와 시각문화』 3(2003), pp. 154-203; 홍선표, 「朝鮮後期 서화에호풍조와 鑑評活動」, 『朝鮮時代繪畫史論』(서울: 문예출판사, 1999), pp. 231-254; 황정연, 「조선후기 서화수장론 연구」, 『藏書閣』 24(2010), pp. 193-231.

5 김재호, 「조선후기 중앙재정의 운영: 『六典條例』의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43(2007), pp. 3-40; 이현창 외,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서울: 서울대출판부, 2010); 최완기,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생활』(서울: 서울학연구소, 1996) 등 참조.

6 궁가의 역사는 주남철, 『궁집』(서울: 일지사, 2003)에서 처음 다루었다.



살림집, 眞殿, 제사궁, 內帑, 별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이 마련되었다.<sup>7</sup>

궁가는 일반 백성들의 가택과 마찬가지로 서울 도심지에 넓게 분포하고 있었고 운영을 담당한 중서층 宮屬들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또한 실규모가 150~250여 칸에 달했을 정도로 일반가옥과 비교하여 면적이 컸음에도 암울한 근대사 속에서 황실재산정리와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 철거되었고 이곳의 문화적 수준을 담았을 家藏品 역시 흩어져 버렸다.

궁가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경제사 분야에서 왕실재정의 조달과 운영의 관점에서 살펴본 일련의 논문이 다수 발표되면서 그 존재와 역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8</sup> 근래에는 건축 분야에서 궁가의 家屋圖形 발굴을 통해 대표적 궁가의 건축구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9</sup> 그러나 아직까지 조선후기 문화사에 있어 궁가의 위상이라든지 그 속에서 생활한 인물들의 일상, 미적취향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조의 잠저였던 彰義宮은 식민지 시기 훼손되어 현재는 터만 남아 있으나, 18~19세기 왕실의 상업 및 문화 활동의 또 다른 주체로서 궁가의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조선후기 중앙의 정치흐름과 문화사를 주도한 인물들이 다수 밀집했던 서울 西村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창의궁은 지역사를 대변한 궁가였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본고는 왕실의 경제적 기반과 문화전반에 있어 궁중과 양반사대부, 중인 등 사회계층을 연결한 매개이자 예술 後援과 향유의 주체로서 궁가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영조의 창의궁 운영을 중심으로 드러난 조선후기 궁가의 미술사·도시인문학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sup>11</sup>

7 왕족들의 주거지였던 궁가와 왕족의 재정을 담당한 궁방은 다른 의미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궁가가 궁방의 역할을 일부 수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근에는 궁가의 복합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정의를 다양하게 내리고 있는 추세이다. 조영준, 「조선후기 궁방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112(2008), pp. 273-304 참조.

8 宮家에 대한 경제사분야의 연구는 궁가 그 자체 보다 왕족의 경제적 처우를 위해 마련된 토지인 宮房田의 운영에 집중되어 있다. 조선시대 궁방의 운영과 궁방전에 대해서는 朴廣成, 「宮房田의 研究」, 『仁川敎大論文集』 5(1970), pp. 1-71; 朴準成, 「17·18세기 宮房田의 확대와 所有形態의 변화」, 『韓國史論』 11(1984), pp. 185-278; 조영준, 「조선후기 '생애주기'형 궁방의 경제적 기반과 운영 양상」, 『정신문화연구』 144(2016), pp. 111-138 등 참조.

9 송인호·정은주, 「조선 별궁 於義宮(龍興宮)의 都市 位相과 英祖의 親迎」,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2011.5), pp. 145-154; 정정남, 「조선후기 宮家の 공간구성 및 배치」,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2009), pp. 173-176; 주남철, 「조선시대 청평위궁(淸平尉宮)의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2011.7), pp. 123-130.

10 필자는 창의궁 부속건물인 日閑齋의 서화수장에 대해 다른 바 있으나, 궁중이 아닌 궁가에 형성되었던 서화컬렉션의 의미, 더 나아가 조선후기 서화유통과 收藏에 있어 궁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처 접근하지 못했다. 황정연, 「조선시대 궁중 서화수장과 미술후원」, 『조선왕실의 미술문화』(서울: 대원사, 2005), pp. 90-93. 본고는 조선후기 서화수장과 鑑賞의 주체에 있어 그동안 주로 언급되었던 궁중-사대부-중인층에서 벗어나 좀 더 밀도있게 층위를 파악하기 위한 후속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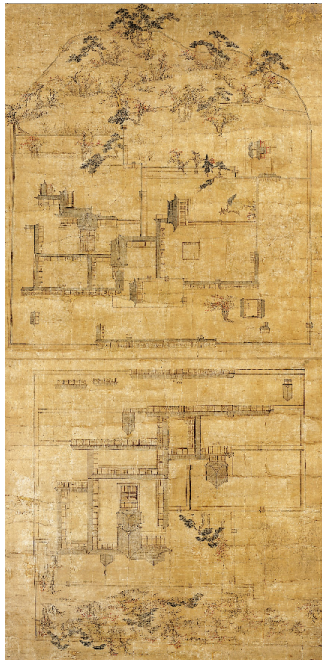
11 최근 인문학과 都市史가 연계되어 등장한 '도시인문학' 분야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인문학은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사회학의 支流로 등장한 학문분야로, 도시의 역사와 삶의 형태, 문화, 개발과 정책 등을 포괄한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인문학의 개념에 대해서는 서우석, 「도시인문학의 등장-학문적 담론과 실천」, 『도시인문학연구』 6(2014.2), pp. 29-56 참조.

## II. 조선후기 궁가의 도시문화적 면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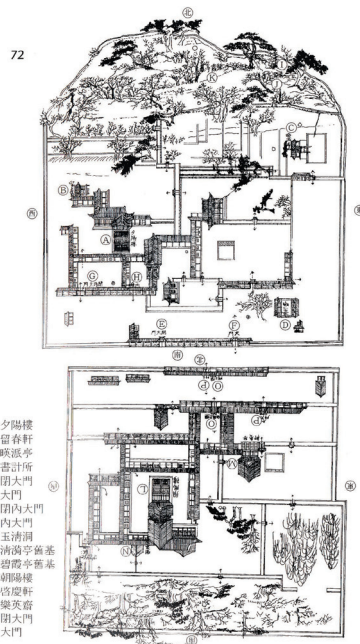
### 1. 궁가의 입지와 상업적 소비처로서 기능

조선시대 궁가는 충남 예산에 건립된 영조 차녀 和順翁主(1720~1758)의 궁가라든지 경기 양주에 마련된 영조의 庶女 和吉翁主(1754~1772)의 궁가처럼 지방에 조성된 예도 있지만 대부분 서울 도심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 15~20세기 초 동안 서울 5대궁 주변에 있던 궁가의 건립상황을 보면, 문헌과 실물을 통해 위치가 확인된 궁가는 약 35곳이다<sup>표1</sup>.

이들 궁가 중 형태를 알 수 있는 가장 이른 예는 서울 종로에 위치했던 麟坪大君宮家와 효종의 잠저 龍興宮을 그린 <麟坪大君坊全圖>이다.<sup>12</sup> 이 평면도는 상단에 인평대군궁집을 그리고 아래에 용흥궁을 그린 것이다<sup>도1,2</sup>. 인평대군가의 夕陽樓와 용흥궁의 朝陽樓로 대표되는 두 궁가는 그림처럼 실제 위아래로 마주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림 속 모습처럼 궁가는 樓와 軒, 대청과 사랑채를 두었다는 점에서 양반 사대부가와 유사했으나, 각종 기록을 통해 보면 그 규모와 화려함이 양반가에



도1. <麟坪大君坊全圖>, 17세기 추정, 자본수묵,  
184.7×90.7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2. <麟坪大君坊全圖>의 도해  
출처: 주남철, 『궁집』, 일지사, 2003, p. 72

12 <인평대군방전도>의 회화적 특징에 대해서는 안휘준, 「奎章閣所藏 繪畫의 內容과 性格」, 『韓國文化』 10(1989), pp. 309-392 참조.

비해 상당히 지나쳐 조정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평대군궁집이나 용흥궁처럼 평면도가 남아 있는 19세기 이전의 궁집은 매우 드물어 구체적인 형상을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명칭만 전해오고 용처와 위치가 알려지지 않는 궁가와 종친들의 궁방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표에서 제시된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3</sup>

표1. 조선시대 서울 宮家의 현황<sup>14</sup>

× 흔적이 없는 경우 / △ 터만 남았거나 이권된 경우 / ○ 건물이 잔존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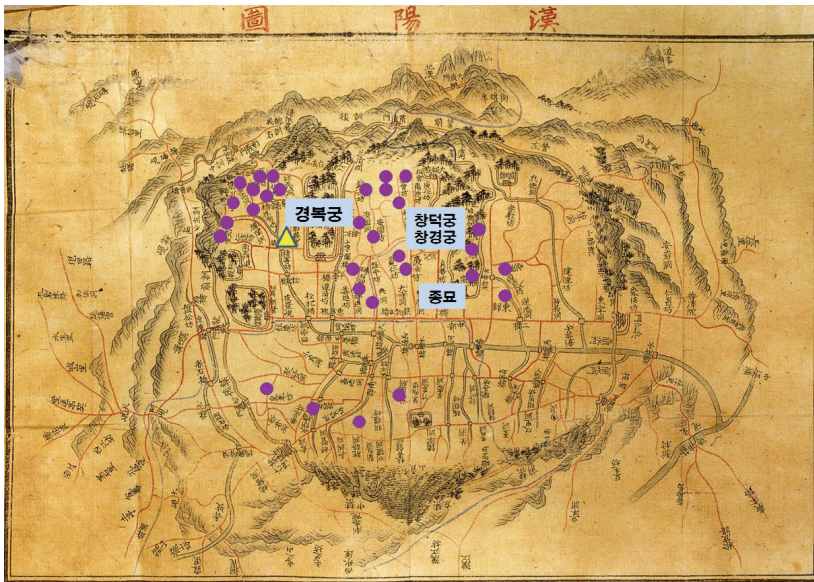
순번	宮號	용도	조선시대 행정구역	현위치 (추정지)	현존 여부	비고
1	桂洞宮	완림군 이재원가	북부 광화방	종로구 원서동	×	살림집
2	芴洞宮	덕온공주·부마 윤의선가	북부 순화방	성북구 장위동	○	살림집
3	毓祥宮	숙빈최씨사당	북부 순화방	성북구 공정동	△	祠堂 / 七宮에 합사
4	宣喜宮	영빈이씨사당	북부 순화방	종로구 신교동	△	祠堂 / 七宮에 합사
5	延祐宮	정빈이씨사당	북부 순화방	성북구 순화동	△	祠堂 / 七宮에 합사
6	慈壽宮	무안대군가	북부 순화방	종로구 옥인동	×	궁 / 살림집
7	昌城宮	화유옹주·부마 황인점가	북부 순화방	종로구 창성동	×	살림집
8	永膺大君宮家	영응대군가	북부 안국방	종로구 안국동	○	(별칭)안국동별궁 / 고종때 嘉禮所 / 2009년 부여로 이전
9	景祐宮	수빈박씨사당	북부 양덕방	종로구 계동	△	祠堂 / 七宮에 합사
10	仁興君宮家	인흥군·낭선군가	북부 양덕방	종로구 가회동	×	살림집
11	彰義宮	영조의 잠저	북부 의통방	종로구 통의동	△	살림집과 祠堂 병용
12	永惠翁主宮家①	영혜옹주·부마 박영효가	북부 관인방	종로구 관훈동	○	살림집 / 1998년 남산 한옥 마을로 이관

13 예를 들어 효종과 인선왕후 사이의 소생인 숙신공주·숙인공주·숙명공주·숙휘공주·숙정공주·숙경공주와 그 부마들의 궁가는 대부분 서부 인달방 仁慶宮 터에 주로 건립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로 보면 실제 서울 도심에 건립되었던 왕자, 공주 등의 궁가는 매우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경궁 터 궁가의 건립에 대해서는 정정남, 「효종대 仁慶宮內 宮家の 건립과 그 이후 宮域의 변화」, 『서울학연구』 39(2010), pp. 177-199 참조.

14 표1은 『宮闕志』(서울: 서울학연구소 영인본, 1996); 柳本藝 著, 권태익 譯, 『漢京識略』(서울: 탐구당, 1975); 『東國輿地備考』(서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영인본, 2000); 주남철, 앞의 책(2003); 이순자, 『조선의 숨겨진 왕가이야기』(서울: 평단, 2014)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궁방」 항목에는 갑오경장 후 유지된 1사 7궁의 제사궁 및 역대 왕자·공주들의 궁방 총 68곳이 열거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가능한 물론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순번	宮號	용도	조선시대 행정구역	현위치 (추정지)	현존 여부	비고
13	永惠翁主宮家②	영혜옹주·부마 박영효가	북부 안국방	종로구 안국동	○	살림집 / 1894년 고종이 박영효에게 하사
14	上於義宮	인조의 잠저	중부 경행방	종로구 낙원동	×	살림집
15	樓洞宮	진계대원군가	중부 경행방	종로구 익선동	×	살림집과 祠堂 병용
16	大賓宮	희빈장씨사당	중부 경행방	종로구 낙원동	△	祠堂 / 七宮에 합사
17	竹洞宮	명온옹주가	중부 관인방	종로구 인사동	×	살림집
18	明安宮	명안공주가	중부 견평방	종로구 견지동	×	현종의 제1·2女는 각 明惠·明善宮 운영
19	順和宮	경빈김씨가	중부 견평방	종로구 인사동	×	살림집
20	寺洞宮	의친왕궁가	중부 관인방	종로구 관훈동	×	살림집
21	龍洞宮	순회세자가	중부 수진방	종로구 수송동	×	살림집
22	壽進宮	평원대원군가	중부 수진방	종로구 수송동	×	살림집 / 祠堂으로 이용
23	雲峴宮	흥선대원군가 고종의 잠저	중부 정선방	종로구 운니동	○	살림집
24	龍興宮	효종의 잠저	동부 송교방	종로구 연지동	×	(별칭)어의본궁, 하어의궁 / 嘉禮所로 이용
25	麟坪大君宮家	인평대군가	동부 송교방	종로구 이화동	×	(별칭)大君坊·후에 長生殿, 梨花莊으로 변경
26	景慕宮	사도세자사당	동부 송교방	종로구 연건동	×	祠堂
27	福溫公主宮家	복온공주·부마 김병주가	동부 송신방	강북구 번동	○	살림집
28	梨峴宮	광해군 잠저	동부 연화방	종로구 인사동	×	숙빈최씨방 / 정조때 壯勇營 설치
29	慶壽宮	화빈윤씨가	동부 연화방	종로구 연건동	×	살림집과 祠堂 병용
30	都正宮	선조의 잠저·덕흥대원군가	서부 인달방	종로구 사직동	×	살림집
31	淸平尉宮	숙명공주· 부마 심익현가	서부 인달방	종로구 내자동	×	살림집 / 以御所로병행
32	明禮宮	월산대군가	서부 황화방	중구 정동	×	(별칭)慶雲宮 / 왕실內帑
33	永禧殿	의숙공주·공빈김씨사당	남부 훈도방	중구 저동	×	후에 眞殿으로 활용
34	儲慶宮	인빈김씨사당	남부 호현방	중구 남대문로	△	祠堂 / 七宮에 합사
35	德安宮	순헌황귀비사당	남부 명례방	중구 태평로	△	祠堂 / 七宮에 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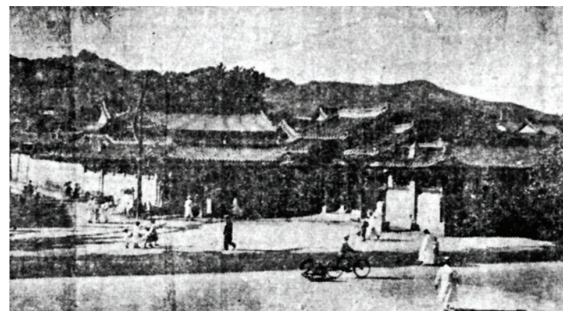




도3. 조선시대 서울지역 주요 궁가의 분포 \*『한양도』(18세기)에 필자가 표시 ▲: 창덕궁 ●: 기타 궁가

표1에 제시된 궁가들이 위치했던 지역을 보면 오늘날 종로구 일대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었다<sup>도3</sup>. 지리적으로는 인왕산과 북한산 아래 삼청동, 가회동, 효자동, 통의동 등을 포괄하는 北部에 다수 조성되어 있었고, 관훈동, 인사동, 안국동, 낙원동 등 종로 일대의 中部에 그 다음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sup>도4</sup>. 그 밖에 東部の 연지동과 이화동, 南部의 남대문과 을지로 부근, 西部의 사직동 일대에도 건립되었다. 이렇듯 대부분의 궁가가 북부지역, 즉 서촌과 북촌을 아우른 지역에 밀집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서울의 도시계획에 나타난 왕실기구의 편재양상에 대해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조선시대 서울의 공간은 지배층의 성리학적 理想을 반영하여 『周禮』, 『考工記』에 나타난 도시 건설을 모범으로 삼아 풍수지리설을 가미해 도성, 궁궐, 祀廟, 관아 등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5</sup> 정부는 효율적 통치를 위한 행정조직으로 중부를 비롯해



도4. 안국동별궁(영응대군가)의 모습, 서울 종로, 1930년대

15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서울: 서울특별시, 1977); 원영환, 『조선시대 한성부 연구』(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0); 노영구, 「朝鮮前期 漢城의 정비와 里門의 설치」, 『서울학연구』 11(1998), pp. 1-35. 개항기 잡지 『別乾坤』에 설명된 5부의 면적과 경계를 보면 근대기까지도 背山臨水와 祖山과 案山 등 풍수지리 원칙에 따른 조선시대 도시구획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함없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작가미상, 『京城の大觀』, 『別乾坤』 23(1929,9,27), p. 1.

동·서·남·북부의 五部를 두었는데,<sup>16</sup> 5부는 서울을 일정한 방향에 따라 지역을 분할하여 담당한 행정기구였다.

5부 체제가 조선시대 계획도시로 서울을 특징짓는 행정단위로 정착되면서 왕실기구와 工商衙門과 상점, 점포, 祠堂, 치안시설 등이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면서 增設되었다. 그 결과 경복궁을 기준으로 중서부지역에는 왕실과各司, 동북부지역에는 군사와 상업기지, 남서부지역에는 왕실 재원의 공급처와 창고가 주로 건립되었다.<sup>17</sup> 이러한 조선후기 서울의 공간재편은 임진왜란·병자호란 후 수도방위정비와 유통구조의 발달, 인구의 이동 등에 따른 중앙정부의 다양한 대응방안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으나, 왕실의 內帑을 담당한 1司·4宮이라든지 왕족들의 생활근거지, 국가의 행정업무를 전담한 관청 등 왕실과 밀접했던 기구는 조선전기부터 法宮인 경복궁 주변에 설립된 전통을 따라 후기에도 거의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19세기 전반에 간행된 『漢京識略』에 의하면 당시에도 중서부지역, 넓게는 북서부에 해당하는 경복궁 서쪽 지역은 궁·묘·전 등 왕실기구와 관청 등 공적 시설, 제사궁 등이 주로 밀집해 있었다.<sup>18</sup> 여기에는 궐외각사인 의정부와 육조, 부속 아문들도 자리해 있었는데, 약 80개 처의 정부각사가 19세기까지 존속했으며, 대부분 경복궁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특히 왕실의 소요물품을 진배하는 공상아문들은 司藥寺, 掌苑署 등을 제외하고 조선전기부터 중서부 지역에 건립되었으므로<sup>19</sup> 궁가 주변에는 주로 왕실재원을 담당한 상업시설이 모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서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중앙재정의 지출에 의존하고 있었고 서울은 왕실과 관부를 받들기 위해 재화가 물려든 행정도시로서 성격이 강했다는 연구결과가 말해주듯,<sup>20</sup> 왕실과 관청은 호조나 선혜청의 물력을 토대로 상인층으로부터 물품을 조달받는 시장의 주요한 소비처였다. 특히 조선후기에 들어와 자리가 모자랐을 정도로 급격히 늘어난 궁가는 국가가 왕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제사를 지내야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전답과 노비 뿐 아니라 시장의 물품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했다. 따라서 17세기 후반~19세기 동안 선혜청이 주관하여 어의궁·용동궁·창의궁·순화궁 등 각 궁에 곡식과 식료품·의복·魚物·동전 등을 상납하여 운영을 지원해주었고 금전적으로

16 五部는 다시 도로시설에 따라 50여개의 坊으로 구분하였는데 18세기 후반경에는 총47개 방으로 정리되었다. 고지도에 의해 오부의 범위를 살펴보면, 東部는 동대문과 혜화동·쌍계동 일대, 西部는 경복궁 서쪽과 경희궁 주변, 마포와 서강 지역, 南部는 목멱산 아래 광화문에서 남대문 일대, 北部는 인왕산과 백악산 아래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지역, 그리고 中部는 청계천 위아래 지역, 즉 창덕궁과 창경궁 아래 지역과 충무로와 퇴계로, 독섬 일대를 포함한 지역이다.

17 조선후기 서울의 공간구분과 유형에 대해서는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의 공간구성과 공간의식」, 『서울학연구』 26(2006), pp. 1-48.

18 『漢京識略』 권1, 「廟殿宮」 및 권2, 「闕外各司」 참조.

19 반면 비변사와 각 군영은 창덕궁 인근의 동부지역에 신설되었으며 재무기구인 선혜청과 군역청, 그리고 준천사는 각기 서부, 남부, 중부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다. 최주희, 「조선후기 왕실·정부기구의 재편과 서울의 공간구조」, 『서울학연구』 49 (2012a), pp. 131-172.

20 이현창, 「조선왕조의 경제통합체제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0), pp. 17-19.

풍족한 궁속들이 다량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직접 난전을 열어 판매를 하면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기도 했는데 이는 상인들과 불화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sup>21</sup>

한편, 궁가는 市廛 상인들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중요 소비처로 부상하였다. 여항의 시장이 일반 백성들의 일용품 교환을 주 기능으로 했다면 시전은 왕실이나 지배층의 사치품 조달을 주로 담당하는 御用 조직이었다. 시전이 왕실에 물품을 조달하는 체제는 궁중의 각 殿에서 용동궁, 명례궁, 수진궁 등 궁가에 필요물품을 발주하면 해당 궁가에서 시전을 통해 물품을 내입하는 방식이었다.<sup>22</sup> 이 때문에 궁속들은 자연히 시전상인들과 접촉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물자가 궁가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시전상인들은 가례·길례·국장 등 왕실행사에 필요한 물품, 궁궐과 관청의 유지보수, 수리도배, 왕족들이 필요한 각종 소요물자를 진배하였고 왕실은 이들이 화재 등 곤란한 위기에 처했을 때 재

원을 내어 도와주었다.<sup>23</sup> 이 중 각종 종이 를 공납한 紙廛과 국산 명주와 의복을 취급한 綿紬廛은 취급 물품이 왕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다보니 비교적 國役의 부담을 많이 진 가게였다<sup>도5</sup>. 이들은 독점권을 확보하는 대신 왕실에 배속된 장인 또는 시장에서 工房을 운영한 장인을 동원하여 수시로 노동력과 물품을 조달했지만, 너무 헐값으로 대가를 받거나 대금 체불이 오래도록 지연되는 등 폐단도 많았다.<sup>24</sup>



도5. 20세기 전반 紙廛의 모습

21 최주희, 「18세기 중반 定例類에 나타난 王室供上の 범위와 성격」, 『藏書閣』 27(2012b), pp. 38-69. 궁가에 소속된 宮屬들이 私賈를 하여 상인들의 폐단이 있다는 논의는 이미 1677년부터 등장한다. 『承政院日記』 13책, 肅宗 3년 11월 丙戌 그밖에 18세기 후반에는 궁가의 보호와 경관을 위해 宮低 백성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상업적 특권을 주기도 했다. 이에 관해서는 김동철, 「18세기 말 景慕宮 募民과 그들의 상업활동」, 『지역과 역사』 8(2001), pp. 5-43.

22 조영준, 「조선후기 왕실의 조달절차와 소통체계」, 『古文書研究』 37(2010), pp. 91-121.

23 조선 후기 시전과 왕실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동환, 「조선후기 王室과 시전 상인」, 『서울학연구』 30(2008), pp. 71-97; 同著,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2008), pp. 111-147; 변광식, 『조선후기 시전상인연구』(서울: 해안, 2001).

24 궁가의 시전에 대한 횡포는 조선왕조실록 등 관찬사료에 종종 등장한다. 『哲宗實錄』 권15, 哲宗 14년 8월 丁酉(국편영인본 48책 p. 662); 『高宗實錄』 권29, 高宗 29년 12월 庚申(국편영인본 2책 p. 440); 『高宗實錄』 권42, 高宗 39년 10월 壬寅(국편영인본 3책 p. 266).





도6. 윤현궁 도배지에 그려진 〈화훼괴석도〉, 19세기, 지본담채, 각 122.5×45.5cm, 서울역사박물관



도7. 윤현궁 도배지에 그려진 〈화조도〉, 19세기, 지본수묵, 각 121.3×31.6cm, 서울역사박물관



도8. 윤현궁 舊藏 〈화조도〉 병풍, 19세기, 견본 채색, 165.5×53.8cm, 서울역사박물관

그 중에서도 지전은 궁가와 지리적·업무적으로 가까운 관계였다.<sup>25</sup> 지전은 왕실과 궁가, 근교의 왕실건축물 유지보수를 위한 도배지를 전적으로 담당한 가게로, 화가들을 고용해 운영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림을 그린 도배지가 궁가로 납품되면서 자연히 여향의 그림도 유입된 계기가 되었다.<sup>26</sup> 고종의 잠저이자 흥선대원군의 거처로 활용된 윤현궁의 경우, 창호에 사용된 도배지 중 지전 소속 화가들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여러 폭의 화조도가 포함되어 있다<sup>도6,7</sup>. 치밀하고 화려한 궁중회화와 비교할 때 이 그림에서 보이는 투박한 묘사와 색감은 여향의 취향을 대변해 주고 있다. 윤현궁에는 민화풍 그림 외에 궁중화원이 그린 책거리, 화조도병풍도 소장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지전을 통해 유입된 이러한 도배지들은 여향문화의 전달통로로서, 궁가가 왕실과 서민문화를 복합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을 것이다<sup>도8</sup>.

25 1910년 5월 22일자 『皇城新聞』, 「특별광고」란에는 종로 大廣橋에서 紙物鋪을 운영한 金聖煥의 지물용품 주문제작 광고가 실려 있다. 동업자로서 함께 광고를 낸 사람은 金容鎭이다. 김용진은 北部 안국동별궁 앞에서 지물포의 支店을 차려 운영했으며, 국내외 각종 紙物 및 書筆墨 용품 제작을 담당했다. 가게의 위치로 보아 그는 종로의 같은 권역 내 있던 궁가(안국동별궁)에 지물용품을 납품했을 가능성이 크다.

26 紙塵과 그림유통에 대해서는 윤진영, 「조선말기 궁중양식 장식화의 유통과 확산」, 『조선궁궐의 그림』(서울: 돌베개, 2012), pp. 323-405 참조.



## 2. 궁가와 18·19세기 서울의 서화유통·수집문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궁가는 경복궁과 가까운 북서쪽에 해당하는 곳에 밀집되어 있었으나 서울의 5부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창덕궁 등 궁궐과 더불어 조선후기 서울의 물류체계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각종 물품유통에 있어서도 최대의 소비처 중 하나였다. 변화한 도심 속에서 서울의 변화상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던 궁가의 지리적 환경과 궁속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은 서화유통과 감상, 수집이라는 미적 취향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이 상업도시로 새로운 면모를 띠기 시작하고 여항에서 서화유통이 점차 가시화된 때는 시전이 늘어난 17세기 말엽을 전후한 시기이다.<sup>27</sup> 시전은 1670년을 전후로 쌀가게(米廩)을 중심으로 창설되었고 이후 어물전, 정육점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한 가게가 등장했지만 아직 서화를 매매한 점포는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장가들은 시장보다는 주로 燕行과 중개인(僧人)을 통해 국내외 작품을 구하는 분위기였다. 궁가의 종실 역시 궁으로부터 하사된 물품 외에 골동서화는 燕行을 통해 직접 구입하거나 주변인들의 선물, 중개인들을 통해 입수했다. 지금의 가회동 일대에 해당하는 북부 陽德坊에 궁집을 두고 생활한 仁興君 李瑛(1604~1651)과 그의 두 아들 朗善君 李俔(1637~1693), 朗原君 李儼(1640~1699) 형제의 서화수집 활동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연행이나 왕족, 사대부들과 교류하며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한편 저잣거리에서 회자되는 예술동향을 접하고 직·간접적으로 자료를 구득했다.<sup>28</sup>

한편, 17세기와 달리 18세기 후반 경에는 서책 또는 서화를 판매한 중개인의 활동과 더불어 다량으로 생활용품과 서화를 거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마련되어 궁가 역시 서화시장을 통한 소비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9</sup> 당시에는 서화를 전문적으로 취급한 가게를 ‘書畫肆’라고 특별히 지칭했다. 19세기에 작성된 『東國輿地備考』, 「舖肆」條에 의하면 “서화가게는 大廣通橋 서남쪽 개천가에 있는데, 각종 서화를 판매한다.”라고 구체적인 위치가 명시되어 있어 서화가게가

---

27 서울의 상가는 원래 조선초기에 건설된 종로시전 상가가 유일한 것이었으나, 17세기 후반에 남대문 밖의 七牌시장, 18세기 중엽에 梨峴시장이 출현하여, 18세기 후반에는 三大市로 불렸으며, 19세기 전반에는 昭義門 밖 시장까지 합쳐 4곳의 상가가 형성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약국·담배가게(煙肆), 정육점(顯房), 책방 및 그림가게 등 점포상업도 도심 곳곳에서 성행하였다. 고동환, 「18세기 서울의 상업구조 변동」, 『서울상업사』(서울: 태학사, 2000), pp. 211-255.

28 17세기 중친의 宮房운영과 서화수장에 대해서는 황정연, 「朗善君 李俔의 書畫收藏과 編纂」, 『藏書閣』 9(2003), pp. 5-44.

29 조선후기 서화시장에 대해서는 강명관, 『조선후기 문학예술의 생성공간』(서울: 소명출판사, 1999), pp. 254-276; 박효은, 「17-19세기 조선화단과 미술시장의 다원성」, 『근대미술연구』(2006), pp. 121-150; 同著, 「18세기 조선 문인들의 회화수집활동과 화단」, 『미술사학연구』 233·234(2002), pp. 139-185 참조.

소광통교 상단인 대광통교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30</sup>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의 양상은 시전제도 자체의 변화와 난전상업의 성행 외에도 서울 안의 상가가 확대되고 시전이 아닌 점포영업이 성장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서화사는 바로 이 시기 점포영업이 발전하면서 등장한 곳이었다. 반면 ‘書肆’라고 불린 책가게는 정릉동 屏門이나 육조 앞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사서삼경이나 百家諸書의 책을 팔았다고 한다.<sup>31</sup>

광통교 주변에 서화를 판매한 가게인 서화사가 설립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18세기에는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32</sup> 18~19세기 동안 서화시장이 형성되었던 광통교 일대는 개화기의 書畫鋪로 대표되는 본격적인 서화판매 장소로 역할을 하며 근대시기 고미술시장을 대표하게 되었다.<sup>33</sup>

조선후기에는 물품을 진열하고 판매한 상점을 일컬어 ‘市肆’, ‘塵房’, ‘香塵’이라고도 불렀는데, 許鍊(1809~1892)이 安峴(현 안국동)의 한 향전에서 자신의 화첩이 진열된 것을 보고 놀라워 당장 사왔다는 기록을 통해<sup>34</sup> 서울에서 서화거래가 이루어진 곳이 광통교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장소에 예술품 수요자들을 위한 판매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와 재화가 모인 시장의 활성화는 서울에 세거한 경화사족층이나 부유한 중인층의 수집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俞晚柱(1755~1788)가 구리개, 을지로, 광통교 일대를 돌며 생필품과 의약품, 골동품과 서책을 구입했고 공방의 장인을 불러 서화병풍을 보수하게 한 사례가 이를 증명해 주며, 의관 金光國(1727~1797)이 무명작가의 서화를 다수 구득할 수 있었던 것도 여항의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변화한 시장이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35</sup>

18~19세기 서화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튼튼했던 별령가문이었다. 이들은 가장품과 연행을 통해 다량의 자료를 구입한 한편 중개인과 시장을 통해 수만권의 서책과 골동서화를 수집하여 가내에 마련한 藏書樓에 보관하였다. 金光遂(1699~1770)의

30 『東國輿地備考』 권2, 「漢城府」 鋪肆 書畫肆(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56, p. 142). “書畫肆在大廣通橋西南川邊, 賣各樣書畫.” 조선후기~개화기 광통교를 중심으로 한 서화거래 양상에 대해서는 서울역사 박물관 전시와 편, 『광통교서화사』(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6) 참조.

31 『東國輿地備考』 권2, 「漢城府」 鋪肆 冊肆, “冊肆在貞陵洞屏門, 又在六曹前, 賣四書三經百家諸書.”

32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上)』(서울: 돌베개, 2003).

33 개화기 미술시장에 대해서는 권행가, 「1930년대 古書畫展覽會와 경성의 미술 시장: 吳鳳彬의 朝鮮美術館을 중심으로」, 『근대미술사학』 19(2008), pp. 163-189;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문화 연구』(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김상엽, 「한국 근대의 골동시장과 京城美術俱樂部」, 『東洋古典研究』 19(2003), pp. 299-320; 김취정, 「개화기 서울의 문화 유통 공간-광통교 일대의 서화·도서 유통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53(2013), pp. 43-93; 이구열, 「한국의 근대 화랑사」, 『미술춘추』 2-4(1979-1980).

34 許鍊, 『小癡墨緣記』, 『小癡實錄』(서울: 瑞文堂 영인본, 1992, pp. 145-146).

35 박효은, 「홍성하 소장본 金光國의 『石農畫苑』에 관한 고찰」, 『溫知論叢』 5(1999), pp. 235-288; 同著, 「김광국의 《석농화원》과 18세기 조선 화단」, 『遊藝三昧』(서울: 학고재, 2003), pp. 125-157; 유홍준, 『석농화원』(서울: 놀와, 2015); 황정연, 「『欽英』을 통해 본 俞晚柱의 서화 감상과 수집 활동」, 『미술사와 시각문화』 7(2008), pp. 292-327.

尙古堂, 李胤永(1714~1759)의 水精樓, 尹東晳(1722~1789)의 五耘樓, 李義天(1738~1771)의 萬石樓, 李晩秀(1752~1820)의 萬松樓, 유만주의 欽英閣, 南公轍(1760~1840)의 古董書畫閣, 徐有渠(1764~1845)의 楓石庵, 沈象奎(1766~1838)의 嘉聲閣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곳에서 골동품과 서책, 서화의 열람·차람·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더 나아가 작품의 예술성과 진위여부, 역사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다.

조선후기 별렬가문의 서화애호는 궁가와 연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 가계의 先代를 보면 駙馬였거나 왕실과 밀접한 가문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공주나 옹주에게 내려진 궁가가 이들 가문의 모태였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주 또는 옹주가 주인이었던 궁가의 유물이 양반가의 소장품으로 흡수된 것은 자연스런 결과였다. 또한 위치상으로도 조선후기 별렬가는 궁가가 밀집해 있던 서울의 북서부 지역, 주로 종로일대에 구성되어 있어 지리적으로 가까웠을 뿐 아니라 당대 정치·문화를 주도한 왕실의 외척과 그 후손들이었던 만큼 왕족들과도 공·사적으로 관련이 많았다.<sup>36</sup> 『동국여지비고』에 의하면 19세기 전반까지 이 지역에 거주했던 경화사족으로 이숙번·허견가문(사직동), 권윤가문(필운동), 김수항가문(옥인동), 남곤·박은가문(궁정동), 김정희가문(통의동), 김상헌·김상응·성수침·정철가문(청운동, 창의동), 김조순·민정중가문(삼청동), 민유중가문(안국동), 유자신·심상규가문(송현동), 조만영·임광재가문(재동), 김병학·민영익가문(관훈동), 인사동에 구수영·이완가문(인사동)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sup>37</sup>

이러한 가문들은 오래 전부터 왕실은 물론 지리적으로 가까운 궁가의 구성원들과 연관을 맺으며 궁가의 경제활동과 서화교류, 미적취향에 상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박지원이 “서적은 모두 중국 북건성 健陽지방에서 찍은 坊刻本이고, 서화는 강소성 金陵지방에서 만든 가짜다.”라고 탄식했을 정도로<sup>38</sup> 조선사회에 만연했던 중국제 골동서화 선호 풍조는 별렬가와 궁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조선후기 문신 尹東暹(1710~1795)이 중국에서 구입해와 자신의 초상화에 그림으로 남긴 청동기와 문방류, 흥선대원군 李昉應의 초상화에 그려진 중국제 골동기물, 그리고 영조의 제10녀 화유옹주와 혼인한 부마 黃仁點(1732~1802)이 北京에서 구입해 昌城宮에 보관한 景德鎮 도자기와 비루 등은 왕실과 연계되어 이국적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궁가의 여건을 엿보게 한

36 궁가주변에는 王后考妃房이라고 하여 종묘에 신주가 모셔진 왕후들에게 내려진 宮房이 있었다. 이곳은 왕실의 외척과 후손들이 거주하면서 제사를 모신 곳이었는데, 청풍방의 김우명, 여영방의 민유중, 경운방의 김주신, 함원방의 어유구, 오흥방의 김한구, 풍릉방의 조문명, 청원방의 김시묵, 흥봉하방의 홍봉한 등 역시 京華士族이 대부분이었다. 왕후고비방에 대해서는 『萬機要覽』, 財用編「各貢 各宮各司」 및 최주희, 앞의 논문(2012a), p. 143 참조.

37 『東國輿地備考』 권2, 漢城府「第宅」(서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영인본, 2000).

38 朴趾源, 孔雀館文稿 說「筆洗說」, 『燕巖集』 권3(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2001, p. 70). “…而載籍則建陽之坊刻, 書畫則金閨之贗本爾…”



도9. 이한철·유숙 합작, <이하응 초상>, 외룡관화창의본, 1869년, 견본채색, 133.7×67.7cm, 서울역사박물관



도10. 화유옹주 昌城宮에 전래된 중국제 도자기와 골동기물, 18세기, 국립고궁박물관



도11. 苧洞宮에서 전래된 <혁필문자도>(鳳虎), 19세기, 지본묵서, 53.0×14.2cm,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도12. <혁필문자도>, 19세기, 지본묵서, 103.0×32.0cm, 서울역사박물관

다도9,10.<sup>39</sup> 그러나 궁가의 주인공들이 이렇듯 아취있고 값 비싼 골동서화 취미만 추구했던 것이 아니다. 19세기에 이르면 궁가에서도 여항의 취향을 접하고 공간을 장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운현궁의 도배지를 비롯해 순조의 넷째 딸 덕온공주의 苧洞宮에 전래된 문자도와 혁필화가 그것이다. 저동궁 유물에는 春帖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는 다양한 기법으로 쓴 문자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龍’ 문자도라든지 飛白書로 쓴 ‘鳳虎’ 등의 혁필화는 주로 여항에서 제작해 유통된 것으로, 궁가에서 접한 民畫의 수용양상을 보여준다<sup>도11,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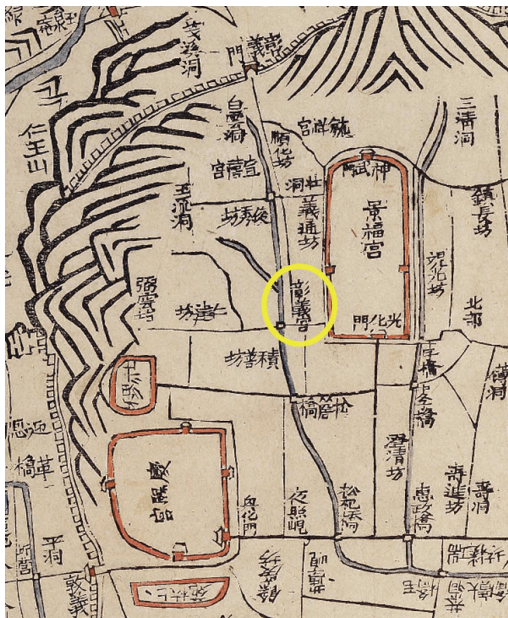
39 황인점은 1753년 화유옹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되면서 종1품 崇祿大夫에 봉해졌으며 昌城尉가 되었다. 1776~1793년까지 17년간 進賀兼謝恩正使, 冬至兼謝恩正使, 冬至正使 등의 직책으로 수차례 燕京에 다녀왔으며, 1783년 천주교 서적을 구입해와 파직당하기도 했다. 『純祖實錄』 권2, 純祖 1년 3월 己卯(국편영인본 47책 p. 372).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궁가의 골동서화 향유는 조선후기 서화애호 분위기 고조와 연행을 통한 외국문물과의 접촉, 서화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왕실과 사대부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 등 시대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창의를궁을 대상으로 궁가의 지리적 입지와 왕족-사대부-중서층 등 계층간의 인적교류가 궁가의 서화향유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Ⅲ. 창의를궁을 통해 본 조선후기 궁가의 서화향유

#### 1. 창의를궁과 서촌의 문화지리적 위상



도13. 《廣輿圖》에 그려진 義通坊 주변과 彰義宮, 181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창의궁은 1721년 영조(1694~1776, 재위 1724~1776)가 왕세제로 책봉되기 전까지 살았던 궁집이다. 경복궁 서쪽문인 迎秋門을 마주하고 있고 북부 義通坊에 위치해 있었다<sup>13, 40</sup>. 일반적으로 왕의 자녀들이 혼인을 하면 私邸를 구해 나가야 하는데, 제택구입 비용과 出閣時 소용되는 물품 등은 모두 왕실재원에서 충당하였다. 따라서 궁가를 조성한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었을 뿐 아니라 넓은 제택 부지를 도심지에 마련하는 일도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었다.

영조 역시 창의를궁에 살게 되기까지 어려움이 뒤따랐다. 1699년 延礽君으로 봉해진 후 1704년 진사 徐宗悌의 딸(貞純王后)과 혼인하자 숙종은 궁가를 새롭게 마련해주려 했지만 옛 궁가의 舊邸 중에는 마땅한 자리가 없었다.

1707년 정명공주의 집을 구입하려 했으나 후손들의 반대로 포기했고 1708년 효종의 3녀 淑徽公主와 부마 寅平尉 鄭齊賢의 옛집을 2천 냥을 주고 구입하였다. 그러나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 바로 출함

40 「궁궐지」와 「동국여지비고」 등 문헌에는 창의를궁의 위치에 대해 北部 順化坊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순화방은 창의를궁과 다소 떨어져 있고 고지도에는 창의를궁이 義通坊 내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의통방은 갑오개혁 때 通義坊으로 개칭되었고 현재 통의동 35-69번지 일대 해당된다. 2008년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건물지 일부가 확인되었다.

하지 못하자 1711년 6월 22일 梨峴宮 숙빈최씨방을 임시 제택으로 정하였다.<sup>41</sup> 마침 영조의 모친 숙빈최씨가 이현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동거가 불가피하였다. 영조는 1712년 2월 11일에 비로소 창의궁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따라서 영조가 창의궁에 머문 기간은 1712년 2월 11일부터 1721년 9월 1일 왕세제로 봉해진 후 입궐하기 까지 약 10년 동안이었다.

창의궁에 기거했던 영조의 연잉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sup>42</sup> 하지만 그가 젊은 시절을 보냈고 입궐한 후에도 수시로 찾아왔을 정도로 영조는 창의궁을 자신의 일생에 있어 큰 의미 있는 존재로 두었다. 그는 이곳에서 조선후기 서울의 도시 분위기를 체험하며 서화에 대한 식견을 갖춘 한편 백성들의 삶과 시정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명문가들이 터를 잡고 있었던 창의궁 주변과 달리 경복궁 북서쪽 창의문 부근은 지세가 척박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옷감을 짜서 햇볕에 말리는 曝白業과 메주를 담가 파는 燻造業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1767년 영조가 무명, 베, 모시를 파는 점포와 개성의 모시 포백 전부를 이 지역 백성들에게 일임시키라는 특명을 내린 것은<sup>43</sup> 아마도 시정사람들의 삶을 본 젊은 날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709년 4월 숙종은 영조의 그림재주를 인정해 사옹원 都提舉로 임명했는데 신료들이 영조를 두고 그림의 이치를 잘 안다고 평가한 기록, 훗날 정조가 영조를 두고 어려서부터 서화에 뜻을 두었다고 회상한 일 등은<sup>44</sup> 그가 비교적 늦은 나이인 31세에 등극하기 이전부터, 즉 창의궁에 기거한 시절에 이미 서화에 관심이 깊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영조가 통치자로서 자질과 예술적 감각을 기르게 된 장소로서 창의궁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고 하겠다.

창의궁이 있던 지역은 오늘날 ‘서촌’으로 불리는 곳이다. 서촌은 北村, 南村 등과 더불어 조선시대 공식화된 지역명은 아니었고 일반적인 군현의 가리키는 지명으로 문헌에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장소로 한정했을 때 ‘村’은 단순한 지리명이 아닌 신분과 직업, 정치성향에 따라 거주지가 구분된 현상을 내포하고 있었다. 아래 인용문은 이러한 숨의를 잘 보여준다.

41 『肅宗實錄』 권50, 肅宗 37년 6월 庚辰(국편영인본 40책 p. 401). 이현궁은 광해군의 옛집으로서 내수사에 소속되어 있었다. 면적이 매우 커서 周圍의 넓고 큼이 다른 궁가에 비교할 바가 아니어서 숙종이 輦을 타고 지날 때마다 마음이 항상 미안할 정도였다고 한다. 정조 때에 이 궁을 폐지하면서 壯勇營을 설치하였고, 순조 때는 장용영의 폐지와 함께 訓局·東別宮·宣惠廳 등이 설치되었다.

42 박용만, 「영조의 가족과 생애」, 『영조대왕』(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pp. 344-355 에서 영조의 연보와 가계를 다루었지만, 창의궁 시절은 자료부족으로 인해 내용이 매우 소략하다.

43 『成北洞曝白燻造契完文節目』(1905); 한양도성박물관 편, 『창의문과 사람들』(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5), p. 75.

44 『承政院日記』 24책, 肅宗 35년 4월 己丑(12일)(탈초본 447책); 『肅宗實錄』 권53, 肅宗 39년 4월 庚申(국편영인본 40책 p. 493); 『弘齋全書』 권7, 『英宗大王行錄』, 영조의 그림 인식에 대해서는 이민선, 「영조 연간의 궁중회화와 영조의 그림 인식」, 『호남문화연구』 52(2012), pp. 189-227.

北山 밑을 北村, 南山 밑을 南村, 駱山 근처를 東村, 西小門 内外를 西村, 長橋, 手標橋 어름을 中村, 廣通橋  
 以上을 우대, 孝橋 以下를 아래대...라 하여, 동, 서, 남, 북의 네 村(通稱 曰 四山 밑)에는 양반이 살되,  
 北村에는 文班, 南村에 武班이 살았으며, 또 같은 文班의 양반이로되, 西村에는 西인이 살았으며, 東村에는  
 小北, 中村은 中人, 우대는 六曹 이하의各司에 소속한 吏輩 庫直 族屬이 살되 특히 茶洞 相思洞 等地에  
 商賈(통칭 市井輩)가 살았고 아래대는 각종의 軍屬(將校 執事 等類)이 살았으며 특히 宮家를 중심으로 하여  
 景福 西便宮 樓下洞 근처는 所謂 大殿別監(宮家の 隸屬)派들이 살고, 昌德宮 東便의 苑南洞, 蓮池洞 근처는  
 武監族屬이 살았으며, 東小門 안 成均館 근처는 館人(속칭 館사람)이 살고, 往十里에는 軍銃(兵丁)들이 살고,  
 五江邊에는 船人商賈들이 만히 살았는데 속칭 강대사람이라 함은 강변에 사는 사람을 지칭하였다.<sup>45</sup>

위 글은 일제시기에 쓰였으나,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서울의 지리적 공간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먼저 서울의 지리를 크게 광통교 위 지역을 우대로, 효교(종묘근처 다리) 아래지역을 아래대로 나누어 청계천을 기준으로 상류는 위, 하류는 아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서촌은 서소문 지역으로 범위를 정의했는데 이는 한양도성의 방향으로 보았을 때 서쪽에 해당되는 곳이다.

아울러 경복궁 서편은 왕족과 고관대작들이 주로 거처하는 곳이라 하였다. 이는 창의궁이 경복궁 서측에 있었던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그런데 경복궁 서측은 행정구역상 북부에 속한 곳으로, 북부에 해당하는 인왕산을 비롯해 이 지역에 건립되었던 관청과 사대부들의 정원, 중인들의 사사로운 문학모임에 이르기까지 西山, 西營, 西園, 西社 등 異稱으로 부른 사례를 보면,<sup>46</sup> 서소문 일대에서 좀 더 확장된 인왕산 아래 경복궁 서편 일대까지 서촌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서촌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상 북부 순화방·인달방·준수방·의통방이 해당된다.<sup>47</sup> 이곳에는 인경궁·자수궁·내수사·육상궁·선회궁·사직단·소현묘를 비롯해 왕실재정을 담당한 관청과 궁가가 모여 있었고 자연경관적으로는 弼雲臺와 인왕산 기슭의 청풍계, 세검정, 백운동천 등의 명소와 안평대군의 匪懈堂, 성수침의 廳松堂, 김조순의 玉壺精舍, 흥선대원군의 石坡亭 등 別墅와 樓亭이 들어서 있었다. 그리고 백운동과 옥류동, 壯洞 일대에 거쳐 기계유씨(유한준), 의령남씨(남공철), 장동김씨(김상용) 등 명문사족들이 당대 시인, 서화가들과 교유하며 생활하던 서울 문화정치의 중심지였다.

또한 가까운 종로에서는 시전과 점포영업이 성행하여 중인과 아전들이 많이 왕래하였고, 인왕산 밑으로는 경화사족의 장서루가 분포했으며, 명승 탐방과 玉溪詩社 등 중서층의 모임이

45 小春, 「예로 보고 지금으로 본 서울 中心勢力的 流動」, 『開闢』 48(1924.6.27), pp. 56-59.

46 박희용·이익주, 「조선 초기 경복궁 서쪽 지역의 장소성과 세종 탄생지」, 『서울학연구』 47(2012), pp. 158-159.

47 西村은 오늘날의 행정구역으로 대입하면 조선시대 西部에 해당하는 통의동, 체부동, 필운동, 누하동, 누상동, 옥인동, 통인동, 창성동, 효자동이 해당하고, 北部의 경복궁과 사직단 사이를 포함하여 彰義門까지 확대해 신교동, 궁정동, 청운동, 사직동 일부를 아우른 지역으로 보고 있다. 오진숙, 「서울 서촌의 역사문화경관자원의 가치 해석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 4.

활발해 예술애호가들의 회합과 활동지로서 각광을 받던 곳이었다. 무엇보다도 鄭澈(1676~1759)이 50대 후반 서촌으로 다시 돌아와 창의궁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順化坊에 仁谷精舍를 마련하고 무수한 작품을 창작한 진경산수화의 산실이었던 점에서<sup>48</sup> 서촌이 조선후기 도시사와 문화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영조는 창의궁에서 머무는 동안 이러한 역동적인 문화상을 체험하고 많은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연잉군 시절부터 그의 주변에는 서화에 해박하거나 藝壇을 견인한 인물들이 여럿 있었다. 그 중 영조와 가장 가까웠던 종실 西平君 李橈(1687~1756)는 수장가이자 서예가로 이름을 떨쳐 유일하게 영조가 인정했던 서화가이자 조연자였다. 그는 필운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중서층 歌客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고 안산에 淸遠亭을 지어 姜世晃, 許佖, 俞漢遇 등 시인과 서화가들에게 제공한 당대 예술후원자였다.<sup>49</sup>

영조는 창의궁을 지척에 두고 가깝게 살았던 장동김씨(안동김씨) 김상용·김상헌계 인물들과도 젊은 시절부터 교유하여 친분이 매우 두터웠다. 당시에는 김수항의 자제들인 이른바 ‘六昌’에 해당하는 金昌集(1648~1722), 金昌協(1651~1708), 金昌翕(1653~1722), 金昌業(1658~1721), 金昌緝(1622~1713), 金昌立(1666~1722) 등이 장의동에서 청풍계에 이르는 지역에서 터를 잡고 정치와 학문, 예술에 이르는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sup>50</sup> 영조의 정치적 후원자이기도 했던 장동김문 인사들과의 교유는 영조로 하여금 이미 젊어서부터 서화에 대한 남다른 식견과 재능을 갖추고 창의궁 시절부터 서책과 서화수장에 관심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 2. 창의궁의 운영과 서화컬렉션

조선시대에 지어져 갑오개혁 이후에도 남아 있던 궁가가 그러했듯이, 창의궁도 처음에는 살림집에서 시작해서 영조가 1721년 왕세제로 책봉되어 입궐한 후에는 本宮이 되었고 이후 제사궁으로 성격이 전환되었다.<sup>5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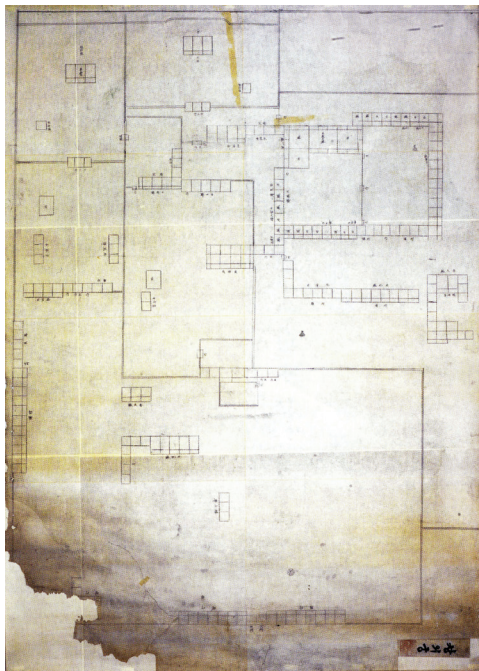
48 강관식, 「謙齋 鄭澈의 仕宦 經歷과 哀歡」, 『美術史學報』 29(2007), p. 155.

49 李奎象, 「書家錄」 李德條, 『并世才彦錄』; 李奎象 著, 민족문화사 한문학분과 譯, 『18세기 조선 인물지』(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7), p.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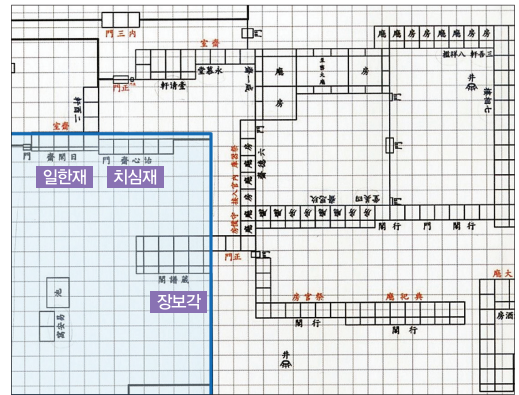
50 이경구, 「조선후기 安東 金門 연구」(서울: 일지사, 2007); 황정연, 「金祖淳을 통해 본 19세기 安東金門의 골동서화애호와 감상 풍조」, 『大東漢文學』 43(2015), pp. 61-94.

51 1731년 첫 아들 효장세자의 신위를 창의궁 孝章廟에 봉안했고 1754년 懿昭廟를 짓고 사도세자의 장남 懿昭世孫을 향사하였다. 1780년 정월에는 정조의 왕세자 文孝世子の 묘우인 文禧廟를 安國坊으로부터 창의궁 궁내의 의소묘 안에 있는 別廟에 옮겨 봉하였다. 1831년에는 순조의 아들이자 헌종의 부친인 孝明世子の 신위를 창의궁에 잠시 봉안하기도 했다. 이후 영희전으로 옮겨진 의소묘와 문희묘는 1908년 7월 통감부의 享祀釐正 정책에 의해 폐지되었고 창의궁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도14. <彰義宮圖形>, 1900년경, 지본수묵, 227.0×159.0cm, 고려대학교박물관



도15. <창의궁도형>에 그려진 日閑齋 영역(별도 표시 부분)  
출처: 『영조대왕』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p. 31에 수록된 도면 활용

영조 연간 창의궁의 전각 구성과 배치 등에 대해서는 바로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彰義宮間數(價銀記)」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쉽게도 이 문건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후대에 작성된 <창의궁도형>이 남아 있어 지금은 없어진 전각명과 위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sup>도14,15</sup>. 이 평면도는 길이 2m가 넘는 방대한 크기로 제작되었다. 1900년 창의궁에 있던 의소묘와 문희묘가 영희전으로 옮겨지기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하단에 전각이 도합 300칸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 규모가 일반 궁가에 비해 3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8년 창의궁 자리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관사가 건립되었고 이후 작성된 경성부지적대장을 보면 그 면적이 21,057㎡(6,381평)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에도 면적이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다.<sup>52</sup>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통의동 35-69번지 일대는 창의궁 일곽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창의궁도형>을 보면 이곳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궁속들의 생활공간, 어진과 문적의 수장공간, 의소묘가 있는 제례공간, 그리고 제례준비와 관련기물을 보관한 典祀廳, 香大廳이 있는 공간이 그것이다. 이 중 향사를 위한 재실, 향대청 자리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52 박희용·이현진, 「영조대 懿昭世孫의 禮葬을 통해 본 창경궁 내외의 동선과 宮家의 공간구조」, 『奎章閣』 45(2014), p. 56.

있어 이미 19세기에는 제사궁으로서 성격이 더 컸음을 보여준다. 각각의 공간에 따른 해당 전각명을 제시하면 표2와 같다.

표 2. 창의궁의 전각 구성

구 분	전각명	기능	비 고
생활공간	壹清軒, 二西軒, 三吾軒, 四美堂, 六德齋, 七相樓, 八祥樓, 玖惠齋, 咸一齋, 永慕堂	일상 공간	• 생활공간의 전각을 숫자순으로 명명 • 영모당은 齋堂이 됨
수장공간	藏譜閣, 日閑齋, 治心齋, 易安窩	• 영조어진, 어필 봉안 • 서책 및 서화 보관 • 일상생활 병행	• 1780년 장보각 소장 영조어진을 일한재로 移安. 이후 일한재는 齋堂이 됨
제향공간	懿昭廟	의소세손 신위 봉향	
제향준비공간	齋堂, 典祀廳, 香大廳, 齋官房 등	의소묘 제례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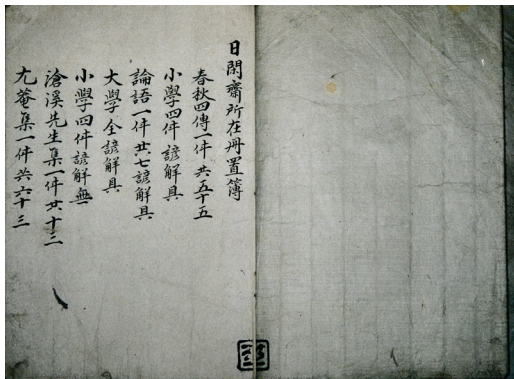
〈창의궁도형〉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는 숙종이 친히 영조에게 호를 내리며 전각명을 지어준 養性軒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궁가의 구성원들이 일상을 보낸 장소를 비롯해 의례를 행하고 수장품을 보관한 전각을 마련한 창의궁의 공간 구성은 지금은 사라진 많은 궁가의 기능과 성격을 유추하는데 도움이 된다.

창의궁은 영조 자신에게 뿐 아니라 숙종의 聖恩, 가족과 추억이 깃든 곳으로 애정이 매우 컸기에 평생 동안 이곳을 “구저”라 부르고 왕래하며 어필현판과 시문을 다수 남겼다.<sup>53</sup> 그 중 咸一齋는 영조에게 10세의 어린 나이에 죽은 효장세자를 얻고 잃은 장소였기 때문에 아픈 추억의 상징물이었으며, 입궐하기 전까지 머물렀던 日閑齋는 자신이 항상 열람하고 참고했을 법한 많은 서책과 서화작품을 보관한 장소였기에 애정을 쏟은 대상이었다. 특히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한재 컬렉션은 자료 부족으로 인해 소장품이 잘 확인되지 않는 다른 궁가에 비해 창의궁이 갖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sup>54</sup> 이곳에 보관되었던 물품 중에는 영조의 창의궁 생활과 당시 시정풍속과의 연관성을 짐작하게 하는 사례도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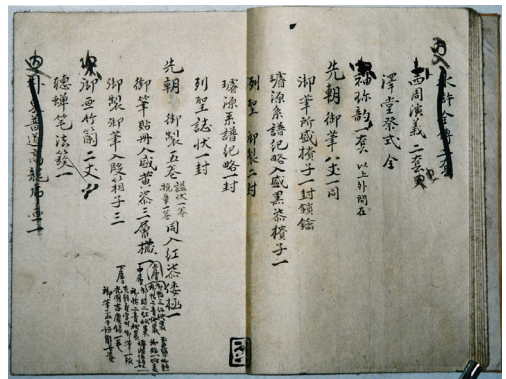
일한재는 영조어진을 봉안했던 藏譜閣과 ‘ㄱ’자로 측면에서 보고 있고 治心齋와 나란히 놓였던 전각으로 여기에는 각종 經書類와 왕실족보, 문집, 역대 임금의 어필, 조선과 중국의 서화작품,

53 영조가 지은 창의궁 관련 시문으로는 『御製日閑齋』(1773), 『御製咸一齋』(1773), 『御製彰義宮』(1774) 등 약 25편이 알려져 있으며, 그 외 『藏寶閣所奉影幀移奉日閑齋儀』(1725-1800) 등 이곳에서 행한 行禮 절차를 기록한 儀註가 전해 온다.

54 지금까지 궁가의 소장품으로서 전면 공개된 사례는 寧洞宮(순조 4년 덕온공주가)과 雲峴宮(고종의 잠저, 흥선대원군의 사저)이 거의 유일하고, 숙종의 누이 명안공주의 明安宮 소장 일부 유물이 공개되어 보물 제1220호로 지정되었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편,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가의 유물』(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2012); 서울역사박물관 편, 『운현궁 생활유물 1-10』(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03-2011) 참조.



도16. 『日閑齋所在冊置簿』 첫 면, 1726년, 1책 12장, 지본묵서, 26.9×18.2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도17. 『일한재소재책치부』에 기록된 어필과 서화

그리고 자잘한 용품 등 약 174건 1,450점이 소장되어 있었다<sup>부표</sup>. 이러한 사실은 일한재에 소장되었던 물품목록을 적은 『日閑齋所在冊置簿』를 통해 알 수 있다<sup>도16,17</sup>. 이 목록서는 영조가 즉위한 후 2년 째 되던 해인 1726년, 영조가 장남 효장세자(1719~1728)에게 소장품을 물려주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컬렉션의 전승을 통해 왕위 계승을 명확히하려는 영조의 심증이 담긴 자료이다. 영조의 잠저시기를 전후로 등락이 있었는지 모르나, 일한재로 대표된 장의궁 컬렉션의 형성과 운영의 주체는 영조 자신이었던 것이다.

『일한재소재책치부』는 조선후기 궁가에서 소장했던 서책과 서화작품을 기록한 유일한 자료이자 현존하는 왕실 장서목록 중 가장 연대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 더욱이 동시기 종친이나 사대부가의 컬렉션 목록으로는 온전하게 알려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목록서를 통해 왕실·종친의 특수층을 떠나 18세기 초 서화수장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크게 경서류와 문집류, 백과사전류, 왕실관계 자료, 중국 및 조선 서화가들의 작품, 종이류, 誌石 등으로 분류된다. 서책은 역대 명인들의 문집에서 부터 故事, 음율, 시문, 언어, 의학, 역학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왕실자료는 『璿源系譜紀略』, 『列聖誌狀』 등 왕실족보를 비롯하여 宣祖와 孝宗, 貞明公主와 仁穆王后, 숙종의 御筆·御畫 등이 해당된다. 어필 중에는 숙종의 것이 가장 많은데 아마도 父王이자 영조 자신이 가장 흠모한 서예가였던 숙종의 영향력이 가장 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금은 목판 인쇄본으로 한 건만 현존하는 인목왕후어필(〈牧牛詩〉)을 10건 이상 소장하고 있었고, 실체가 알려지지 않는 숙종의 1719년 작 화훼인물도(御畫己亥菊秋水墨梅花彩女圖) 한 점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영조 자신의 그림으로는 眞彩人物圖가 소장되어 있었다.

궁가의 어필 수장은 18세기 전반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직 양반가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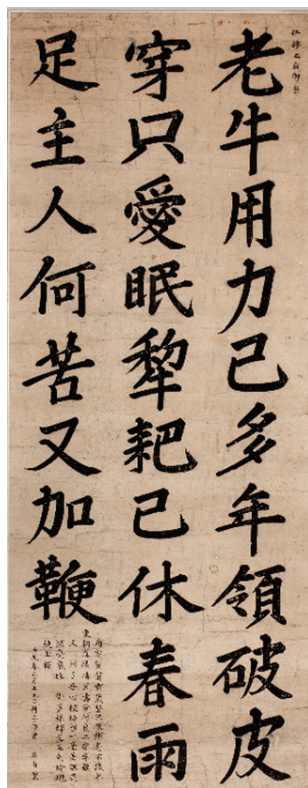
왕실이나 종친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위이었다. 창 의궁은 물론 숙종의 누이 명안공주의 明安宮, 순조의 4녀 덕온공주의 德溫宮 소장품에서 왕과 왕후의 친필 또는 印本이 다수 발견되는 이유는 私家에 비해 궁중유물의 접근과 유입이 용이했던 궁가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다<sup>도18</sup>.

일한재에는 일반 서화가의 작품 또한 여러 점 소장되어 있었다. 尹斗緒의 〈水墨人物簇子〉, 李明郁의 〈九里山十面埋伏圖〉, 朴東普의 〈道高龍虎〉, 작가미상의 〈墨僧老人玩月圖〉, 安平大君 李瑬의 〈小書屏風〉, 李壽長의 글씨 병풍, 韓濩의 大字 글씨, 《海東名筆》 등 수는 많지 않지만 시기별로 활동한 조선 서화가들의 작품이 확인된다. 이 중 안평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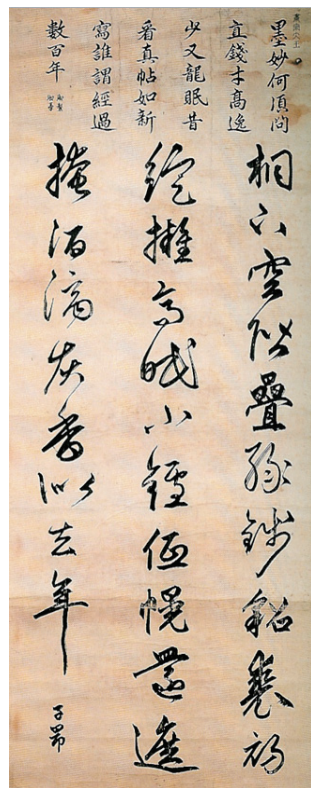
군과 石峰 韓濩의 글씨는 조선 수장가들이 보편적으로 선호했던 작품이었고 윤두서와 박동보는 영조와 동시기에 활동한 화가였다. 畫員 朴東普(18세기)는 영조의 21세 때 초상인 〈延祔君像〉을 주관해서 그렸고<sup>55</sup> 등극 후에도 지속적으로 궁중 畫業에 차출되어 기량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일한재 소장 박동보의 그림은 창 의궁 시절부터 이어 온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해준다.

중국서화로는 작가미상의 비단그림족자 1점, 歲畫 2점, 주희와 조맹부 글씨가 포함되어 있었고 실물은 확인되지 않지만 비백서 1점도 소장되어 있었다. 중국 세화(唐歲畫) 2점이 소장된 사실은 중국 민간년화가 적어도 1726년 이전에는 국내에 들어와 유통되었음을 말해준다. 조맹부의 글씨는 원본이라기보다 숙종의 어제시를 곁들인 목판인쇄본일 가능성이 크다<sup>도19</sup>. 이 조맹부 글씨인본은 蜀體에 능했던 숙종의 명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명안궁에서도 같은 인쇄본을 소장했던 만큼 조선 후기 궁가와 사대부가에 널리 알려졌던 작품이다.

그렇다면 창 의궁 일한재에는 1천여 점에 해당하는 방대한 자료들이 어떻게 수집된 것일까.



도18. 〈인목왕후어필 牧牛詩〉, 17세기 추정.  
목판인쇄, 강릉시립박물관  
\*明安宮 전래품



도19. 〈숙종어제 조맹부 글씨〉, 17세기 추정.  
목판인쇄, 강릉시립박물관  
\*明安宮 전래품

55 진준현, 「肅宗代 御眞圖寫와 畫家들」, 『고문화』 46(1995), p. 99.

먼저 왕자나 왕주가 출할 때 궁에서 생활용품을 지원했음을 감안하면, 소장품의 일부는 궁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왕실죽보와 어필은 여항에 유통이 자유롭지 않은 자료였을 뿐 아니라 〈白鷹圖〉簇子처럼 궁중에서 많이 감상한 그림을 비롯해 정명공주와 인목왕후의 글씨, 李明郁의 〈九里山十面埋伏圖〉 등 일부는 숙종이 영조에게 하사한 작품이기 때문이다.<sup>56</sup> 보위에 오른 후 영조는 창의궁에 소장하고 있던 숙종에게 받은 작품 일부를 궁중으로 들였다.

하지만 일한재 소장품을 두고 모두 궁중 전래품이라고 하기에 수량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단기간 체계적으로 모은 것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수집한 흔적이 보인다. 특히 초학자가 학문을 익힐 때 공부한 『소학』, 『논어』, 『대학』 등 제자백가서와 고서류가 약 102건 1,187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수는 영조가 창의궁 시절 별도로 수집한 도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일부는 왕족이나 사대부 지인들이 선물한 것일 수 있으나, 당시 영조가 궐밖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책자는 궁속들로 하여금 가까운 종로거리의 시장에서 다량 구매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제자백가서는 책가계(書肆)에서 가장 많이 취급한 물종이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일한재에는 쓰지 않고 백지로 남겨둔 종이 두루마리라든지 色紙, 印出紙 등이 유독 여럿 보관되어 있었다. 아마도 글씨를 쓰거나 인쇄를 위해 비축해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창의궁 주변에 종이제작과 관련된 수공업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창의문 밖에는 이미 1415년(태종15)부터 楮貨라는 지폐용 종이를 만들기 위해 造紙署를 설치하였으며, 관공장을 배속시켜 조정에서 사용할 종이를 생산하고 있었다.<sup>57</sup> 『한경지략』에 의하면 “세검정 탕춘대 옆에는 민가 수백호가 제지업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여<sup>58</sup> 19세기에는 이미 경복궁 북측일대에서 종이수공업이 번창했음을 알 수 있다.

영조는 왕위에 오른 후에도 일한재 소장품은 물론 자신의 호적단자와 모친 숙빈최씨 관련 문건들을 추가하여 보관하는 등 이곳의 컬렉션을 계속 유지시켰다.<sup>59</sup> 이는 잡저를 폐궁하거나 다른 용도로 쓴 기타 국왕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영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 행위였다. 즉 영조에게 있어 젊은 시절 창의궁은 서울의 역동적인 변화상을 경험하며 학문과 서화에 관심을 두었던 살림집이었으나, 등극 후에는 모친과 영조 자신, 그리고 장남 효장세자로 이어지는 계보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수장’이라는 행위를 통해 궐밖에 또 다른 정통성을 표방한 장소로 창의궁을 활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살림집이나 제사궁이 주요한 기능이었던 다른 궁가와 차별되는 창의궁이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6 이러한 사실은 『列聖御製』에 실린 숙종의 어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7 정선영, 「조지서의 관제와 관리」, 『서지학연구』 50(2011), pp. 89-111.

58 권태익 譯, 『漢京識略』(서울: 탐구당, 1975), p. 157.

59 관련 도판은 장서각 국학자료조사실편, 앞의 책(2011).

#### IV. 맺음말

이 논문은 조선후기 문화현상 중 하나로 두드러졌던 서화유통과 감상, 수장의 주체를 파악하는데 있어 궁중-사가(사대부·중인 등)이라는 이원적 접근에서 벗어나 양자를 왕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궁가의 역할을 조명한 것이다. 궁가의 주인공은 신분적으로 왕족이었으나, 혼인 후에는 궐 밖으로 나와 도심에 집을 얻어 살았기 때문에 궁안과 궁밖의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 동안 수많은 궁가가 세워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했으나 대부분 일제시기 용도 변경되거나 철거되어 흔적을 찾기가 어렵고, 공주나 옹주의 궁가였을 경우 駙馬를 중심으로 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궁가의 컬렉션이 양반가의 유품으로 편입돼 그나마 전래되던 물품도 많이 사라졌다. 명안궁이나 저동궁, 창성궁 유물처럼 오늘날까지 일부 자료가 전해진 사례도 있지만, 세대가 거듭될수록 양반가 자료 속에서 궁가의 성격이 희석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영조의 잠저 창의궁은 궁가 본연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고 서화컬렉션의 재구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토대로 조선후기 궁가의 문화향유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조선시대 서화수장은 수장가의 고상한 취미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작품의 보관과 감상, 교환, 제공, 상업적 매매로 인해 형성된 서화공간을 통해 촉진된 문화적·사회적인 의미를 담은 행위였다. 마찬가지로 궁가와 유력가문, 왕실재원인 창고가 밀집해 있어 새로운 예술취미, 높은 소비취향을 보인 서촌에 위치해 있던 창의궁은 영조가 잠저시절 머물렀던 약 10년 동안 서울의 사회적·경제적 변화상을 몸소 체험하게 해준 장소였다. 창의궁에 소장되었던 많은 서책과 서화, 여항에서 구득한 것으로 보이는 민화 등은 왕실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비행위를 펼쳐 시장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 동시기 궁가의 문화활동을 유추하는데 도움이 된다.

궁가의 주인공은 왕족이었으나, 양반사대부가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궁과 사가를 연결 짓는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었다. 도심 속 궁가는 왕실과 종친, 여항의 문화가 혼합되면서 어필, 왕실축보와 서화류 등 궁중 물품이 자연스럽게 전래되었고 궁속들의 경제활동과 시전상인들의 왕래를 통해 종로거리에서 판매한 경서류와 민화품 그림, 지전 소속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도배지 등이 유입되었다. 창의궁의 경우에도 컬렉션의 형성과 운영 주체는 영조였지만 왕실과 민가의 문화가 혼재된 궁가의 성격은 이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살펴본 창의궁, 명안궁, 저동궁, 창성궁, 운현궁의 소장품을 통해 궁가를 매개로 왕실문화가 여항으로, 반대로 여항의 문화가 궁가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고 본다.

궁과 민가 모두를 소통한 궁가의 주인공들이 체험했던 예술의 범주와 수준은 여항인들의 것과 달랐다고 생각되며 양측에 모두 인맥이 있었던 만큼 인적관계망 역시 민간보다는 광범위했을 것이다. 궁가는 조선후기 변화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서화유통과 감상, 수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까지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그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다.

미술사 분야에서도 궁가 연구는 아직 시론에 불과하다. 향후 정밀한 성과가 축적되어 조선시대 미술문화를 이끈 다양한 주체를 밝히는데 이 논문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부표

#### 창의궁 일한재 소장 서책 및 서화자료<sup>60</sup>

구 분	서명 또는 작품명	수 량	비 고
경서·문집류	春秋四傳	一件 共五十五	
	小學	四件	諺解 具(언해 구비)
	論語	一件 共七	諺解 具
	大學(全)	一件	諺解 具
	小學	四件	諺解 具
	滄溪先生集	一件 共十三	
	尤菴集	一件 共六十三	
	天文大成	一件 共三十	
	中庸	一件	諺解 具
	近思錄釋疑	一件 共五	
	孟子	一件	諺解 具
	大學衍義	一件 共十二	
	訓蒙字會(全)	一件	
	心經釋疑(全)	一件	
	心經	共二	
	天文類抄(全)	一件	
	大千字	二件	
	家禮	二卷	
	類含(全)	一件	
	聖學輯要	一件 共七	
	東醫寶鑑	一件 共二十五	
	程書分類	一件 共十五	
	周易	一件 共十四	
	儀禮	一件 共三十三	
	君鑑	一件 共十二	歷代君鑑
	東鑑	一件 共二十八	東國通鑑
	寬陋通編	一件 共二十	
	春秋集傳	一件 共三十五	
	奏議	一件 共八十七	

60 부표는 『日閑齋所在冊置簿』의 수록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원전에는 유물이 서가에 놓인 층수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종류별 구분이 없이 混錄되어 있다. 여기서는 독자의 편리를 위해 대상별로 분류하고 원순서대로 기록하였다. 궁으로 內入하면서 묵서로 지운 것 중 확인이 안 되는 대상은 건명에 '미상(먹으로 삭제)'라고 표기하였다. 참고로 수량 표기에 있어 件은 種을, 共은 총책수를 의미한다.

구 분	서명 또는 작품명	수 량	비 고
경서·문집류	左前	共二十	
	御天歌	一件 共十	龍飛御天歌
	東文選	一件 共十五	
	春種	四件	
	通鑑	一件 共十五	
	史漢一統	一件 共十六	
	唐詩品彙	一件 共二十	
	韻會玉篇	一件 共十五	
	三韓史	一件 共十一	內入
	綱目	一件 共六十	
	瑞石集	一件 共九	
	懲毖錄	二卷	
	明紀編年	一件 共三	
	選擇要覽	一件 共二卷	
	春秋諸圖興發說(全)	一件	
	禮記諺解	一件 共六	
	心經擇疑(全)	一件	
	心經	二卷	
	鄭陋通篇補遺	一件 共五	
	朱子筭疑	一件 共十七	
	朱子語錄	一件 共六	
	朱文抄選	一件 乾坤	
	周禮	一件 共七	
	二程全書	一件 共十七	
	內訓	一件 共三	
	미상(먹으로 삭제)	坤	內入
	禮記	一件 十九	
	春秋	一件 共五十六	
	大明集禮	一件 共四十	
	左傳	一件 共二十	
	醫草正傳	一件 共八	
	禮記類編	一件 共十九	
	周易	一件 共十四	諺解 具
	鄭陋通編	一件 共二十	
	東國通鑑	一件 共二十	
	近思錄	一件 共四	
	論語式問	一件 共六	
	農岩集	一件 共十七	
	文選	一件 共六十	
	同春堂別集	一件 共五	
	五行精記	一件 共六	
	靈奎律髓	一件 共十	
	名世文	一件 共三十一	



구 분	서명 또는 작품명	수 량	비 고
경서·문집류	韻府羣玉	一件 共三十五	
	宋鑑	一件 共十五	
	白氏集	一件 共二十	
	挽詞謄覽	미상	
	祭文謄本	미상	
	미상(먹으로 삭제)	미상	內入
	미상(먹으로 삭제)	미상	內入
	葵窓集	三卷	
	天坡集	一件 共四	
	石樓集	一件 共四	
	西河先生集	乾坤	
	三韻補遺	上下	
	唐鑑	一件 共六	
	明記編年	一件	
	八大家文抄	一件 共十七	
	미상(먹으로 삭제)	미상	內入
	笑裡笑	一件 共四	
	宋名臣言行錄	一件 共二十	
	春秋補編	乾坤	
	宋賦	上下	
	歷代捷錄	上下	
	受教輯錄	上下	
	世說	一件 共七	
	大明集禮後序	一	
	文苑楂橘	一件 上下	
	小學	一件	諺解 具
	水滸傳全	二套	
	西周演義	二套	
	澤堂祭式(全)	一件	
	袖珍韻	一套	以上外間在
	樂學軌範	一件 共三	
	字彙	一件 共十三	
	銅人經	上下	
	미상(먹으로 삭제)	共十	內入
	小學	一件	共四
	芝峯類說(全)	一件	
	大學(全)	一件	
	미상(먹으로 삭제)	미상	內入
	미상(먹으로 삭제)	미상	‘內入’ 표시없음
	미상(먹으로 삭제)	미상	‘內入’ 표시없음
	彰義宮間數價銀記	一	
	西漢演義 套	一件	“套”는 포갑을 의미
	미상(먹으로 삭제)	미상	內入

구 분	서명 또는 작품명	수 량	비 고
왕실관계 서책·문서	列聖御製	二卷	
	璿源系譜紀略	一	入咸[函]墨柒櫃子
	璿源系譜紀略	一封	
	列聖誌狀	一封	
	祿牌	二十一丈	
	王牌	二丈	
	延齡君房文前後面印出	二丈	
	大宮誌石面前後面印出	二丈	
	列聖御製	二封	
	先祖御製	五卷	諡狀一卷, 挽章一卷, 同入紅漆倭極一
	大宮誌石面前後面印出	二丈	
어필·어화	先祖御筆	八丈一同	
	御筆	1封 鎖鑰	所咸[函]櫃子
	御筆帖冊	(上層) 御帖三紅袂裏·玉色簇子御軸一·御帖二青袂 裏·御帖一裏 (中層) 御帖二紅袂裏·御帖二青裏·璿源系譜紀略一 (下層) 先朝在春宮時御筆一張·光國誌慶錄一卷·御 筆孟子諺解七卷	
	御製御筆	入段箱子三	
	御畫竹欄	二丈	宣祖御筆
	御筆八貼大屏	一件	
	御筆銀面紙大屏	一件	
	先朝御筆印出黃紙	二丈	
	貞明公主筆蹟	미상	
	御筆敬德宮碑文簇子	一	
	孝廟御筆, 宣廟御筆	미상	後日簇子次封
	御筆小屏風	四丈	
	御筆桃花紙	八丈	
	仁穆王后御筆綃質二五色紙簇子	十丈同封	
	御筆簇子	二	
	仁穆王后御筆綃質簇子	一	
	御筆別墅遺基綃質簇子	二	
	御筆瑞岩簇子	一紅袂同封	
	御畫己亥菊秋水墨梅花彩女圖	一丈	1719(숙종 45)作 肅宗御畫
	先朝春宮時大字御筆	四丈入咸櫃一	
	御筆辛卯三月十四日爲始記錄冊	미상	

구 분	서명 또는 작품명	수 량	비 고
일반서화	海東名筆	—	
	聽蟬[李志定]筆法簇子	—	
	朴東普道高龍虎畫	—	內入
	綃質涓州七十翁水墨山水圖	미상	內入(조세걸 작품으로 추정)
	綃質眞彩人物圖簇子	一丈 自草	英祖御畫
	韓石峰清妙居士大字四丈摸本	一封	
	朱夫子筆蹟大字百世清風摸本	四丈	
	白鷹圖簇子	—	
	李春華書孔明詩	一丈	
	秋坡竹裡畫本	二丈封	
	金國杓書大字	二丈	
	金國杓書大字	八丈	內入
	唐畫綃質簇子	—	
	綃質眞彩吳文峰寫	미상	
	尹斗緒水墨人物圖	中簇次二丈	
	黑繪老人翫月圖	一丈	
	眞彩人物圖	二丈	內入
	綃質淡彩卞亮鷹圖	一丈	
	李明郁九里山十面埋伏圖	一丈	
	唐歲畫	二丈	
	李壽長屏風書	八丈	
	視民如傷大字四字	미상	
	安平小書屏風	次六丈	
	飛白書	四丈	
	大字愛君	一丈	
	子昂書及色紙	一封	
기 타	誌石	五片	
이상 174건 약1,450점			

# The Urban Life and Artistic Atmosphere of Royal Family Households (宮家) in the Late Joseon Period

## - Focusing on the Placeness and Art Collection of Chang-eui Palace (彰義宮)

Hwang Jung-yon\*

This paper examines the artistic role of *gungga* (宮家), the royal family households, by moving away from the dualistic approach of court-ordinary class such as official-literati and middle-people, in order to understand the subject of circulation, appreciation of art objects in late Joseon society. The main member of the palace was a royal family, but after marriage, he or she lived outside the palace and lived in the city, so he or she could have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both culture inside and outside the palace. During the Joseon dynasty, many royal family households were built and disappeared, but most of them were changed or demolish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1910-1945). In this context, it is difficult to approach the cultural center of the royal family households.

The taste for art collecting in the Joseon Dynasty was not only formed by the noble hobby of the storehouse, but was a cultural and social meaning promoted through the painting space formed by the preservation, appreciation, exchange, provision and commercial sale of works. In Chang-eui Palace (彰義宮) which was located in the western village of Seoul, Seochon (西村), there were family houses, ritual shrine, and warehouses keeping royal resources. on the other side, it was a center showing a new artistic hobby and a high consumption taste. The Chang-eui Palace was the place that gave the opportunity to Crown Prince Yeoning (延礽君, 1724-1776) to vividly experience such a change process of Seoul, for about 10 years. Many books, prints, and daily necessities preserved in the *gungga*, were used to support the cultural activities of the royal family households at the same time.

The owners of the *gungga* were royal descendents or noble men who became royal members by

---

\* Associate Researche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marriage. They were in the midst of connecting the royal palace with the family lineage. In addition, it was able to naturally own the royal items closely with the royal family members, like various economic documents, and paintings of famous artists. Although it can not be said because there are not many examples in the present, it is important fact that the royal and private cultures are mixed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royal family households.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understand the real existence of royal family households as shown through the collection of the Changseong Palace (昌城宮) and Myeong-an Palace (明安宮). Now it is only allowed to open the possibility that the royal culture has been spread into the culture of ordinary people by mutually sharing the arts.

The category and level of the arts and antiques experienced by the royal family households communicating with the royal palace and the private house seemed to b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inhabitants outside the palace. Therefore,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household, centered on the busy downtown area, played a key role in the circulation, appreciation, and decoration of the art works in the late Joseon society. Nevertheless the reality is not clearly known due to lack of documents. In the field of art history, the study of the royal family households is still remained veiled. It needs to be able to reach closer to their reality by accumulating further achievements on the subject of *gungga*.

Keywords: Urban Humanities, Joseon Dynasty, royal family households (宮家), Chang-eui Palace (彰義宮), King Yeongjo (英祖), folk painting, art collection